

배포 일시	2022. 10. 24.(월)		
담당 부서 (총괄)	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유경수 (044-201-4244)
		담당자	사무관 강경범 (044-201-4255)
			사무관 오상호 (044-201-4254)
			주무관 김홍일 (044-201-4246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국토교통부, 대한항공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이탈 관련 사고수습본부 설치·운영 등 사고 대응(2보)

- 국토교통부 사고수습본부(본부장: 하동수 항공정책실장)는 현재까지의 사고수습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.

◆ (사고 개요) 10.24일 오전 00:07경(우리나라 시간, 이하 같음) 대한항공 여객기(KAL 631편, 인천 10.23일 18:35경 출발 → 세부, 승무원 11명·탑승객 162명)가 필리핀 세부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 이탈

- 동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은 162명(승무원 포함 173명)이며, 국적별로는 미국 64명, 한국 47명, 필리핀 30명, 캐나다 5명, 러시아 4명, 영국 3명, 일본·몽골 각각 2명, 브라질·핀란드·네덜란드·노르웨이·인도 각각 1명으로 파악되었고,
- 탑승객 모두 인근 호텔 등에 투숙*(17명은 세부공항 내 의료클리닉 진료 후 투숙) 중이며, 필리핀세부대한민국영사관과 협조하여 추가 병원 방문자 등이 있을 경우 사고수습본부로 연락을 요청하였습니다.

* 탑승객 162명 중 49명은 항공사가 제공한 호텔로 이동하고, 나머지 탑승객(113명)은 귀가 또는 본인이 예약한 호텔로 이동

○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3명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감독관 2명이 현지 파견을 위해 항공편 협의* 등 준비 중입니다.

* 현재까지 사고기가 세부공항 활주로 22방향 끝단을 벗어나 정지한 상태로 있어 활주로 패쇄 중이며, 세부공항측과 사고기 견인 등의 조치를 위해 협의 중 (활주로 정상운영 재개에 맞춰 대체 항공편 투입 예정)

○ 동 사고와 관련하여, 진에어 025편(인천 10.23일 20:29경 출발 → 세부, 탑승객 93명)이 인근 클라크공항으로 회항하였고, 연료 보급 후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으며(인천공항 07:16경 도착), 제주항공 2406편(세부 10.24일 00:00경 출발 예정 → 인천, 탑승객 177명)은 지연* 중입니다.

* 탑승객 177명 모두 항공사에서 제공한 호텔에 투숙하여 대기 중

○ 금일(10.24일) 운항 예정인 에어부산 771편(부산 08:00 출발 예정 → 세부)도 결항 조치하였고, 진에어 025편(인천 19:50 출발 예정 → 세부)은 현지 공항 상황 등을 확인하여 운항 여부 결정 예정으로, 해당 항공사에서 승객들에게 항공기 운항 여부 등 운항계획을 지속 공지·안내하고 있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강경범 사무관(☎ 044-201-425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